

“전기차 100만대 시대… 정비산업은 인력·장비 등 태부족”

오토살롱테크 컨퍼런스

첨단자동차 정비산업 과제 논의
인프라·정보 접근성 등 장벽 지적
“수리 결과 검증체계도 마련해야”

국내 전기차가 100만대를 넘어섰지만 정비 인프라는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전압 배터리를 다룰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데다 차종별 정비정보 접근도 어려워 소비자의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오토살롱테크 조직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전기차 고장 나도 수리할 곳 없다’를 주제로 ‘2026 오토살롱테크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기차 정비산업의 과제로 전문인력과 장비, 정비정보 부족을 공통으로 꼽았다.



유영준 카테크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오토살롱테크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정비 인프라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19만1873대로 전체 등록 차량 2670만6123대의 4.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말보다 9만6655대 늘어난 규모다. 전기차 보급 초기 차량이 5~8년 차에 접어들면서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정비 수요

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선 정비업체가 전기차 작업 환경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절연공구와 고전압 진단기, 배터리 리프트본 아니라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해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표 자료에서는 전기차 정비 베이 한 곳을 구축하는 데 최소

1500만~30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영준 카테크 대표는 전문 셀 밸런싱 장비 가격이 6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방식도 부품 교환에서 데이터 진단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건강상태(SOH)와 셀 간 전압 차이, 절연 상태, 충전장치, 구동모터, 열관리 시스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이 확산하면서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과 센서 교정, 수리 후 기능 검증도 정비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병학 차량기술사회 회장은 “이제는 진단기와 통신장비가 없으면 진단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는 단순히 부품을 교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장 데이터를 해석하는 진단사나 정보처리사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종별 정비·유지관리 정보(RMI)에 대

한 실질적인 접근성도 과제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제작사가 독립 정비업체에도 정비 장비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구독료와 인증 절차, 보안 권한 등의 장벽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수리를 마친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는지를 검증하고 책임 소재를 구분할 기준도 필요하다. 업계는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고가 장비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권역별 정비거점과 전문업체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는 “전기차와 첨단자동차가 발전할수록 정비는 더 어려워진다”며 “정비정보에 실제로 접근하고 위험 작업에 맞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한편 수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95@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 ‘지역상생·준법경영’ 사회적 책임 강화

포항·광양 등 지역사회 접점 확대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확대하는 동시에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넓히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병행하며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광양에서 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두 도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2021년 포항지역에 복합문화공간 ‘파크1538’과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를 조성했다. 포스코가 건립해 포항시에 기부한 스페이스워크는 높이 25

m, 총길이 333m 규모로, 누적 관람객 400만명을 넘어서며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광양에서도 지난해 4월 ‘파크1538 광양’을 개관한 데 이어 이달 8일 구봉산 정상에 총길이 365m, 높이 27m 규모의 ‘파크노마 워크’를 공개했다. 광양시와 협력해 조성한 시설로 지역의 산업과 역사, 자연을 연결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조형물과 문화공간 조성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숙박·외식·상권 소비 등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상생 효과를 가능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가 조성한 문화공간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에 달려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상생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는 준법경영 측면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민간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후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온 점과 디지털 기반 준법관리 역량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포스코는 사전심의와 자율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신고 및 사후조치를 연계해 공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정거래 GPT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협력기업 대상 준법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거래 생태계 전반으로 준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투명한 경영 체계는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포스코는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준법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실링에 상업용 세탁가전 공급

獨 유통망 확보… 현지 공략 강화

LG전자가 올해 유럽 상업용 세탁가전 매출을 20%가량 늘린 데 이어 독일 유통망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다음 달 독일 세탁 솔루션 기업 실링에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 ‘LG 프로페셔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실링은 독일 전역의 세탁소와 빨래방에 장비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전문 업체다. LG전자는 호텔과 의료시설 등의 세탁 수요가 집중된 독일에서 판매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상업용 세탁가전은 반복 사용에 따른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보수도 구매를 좌우한다. LG전자는 제품 성능에 매장 운영을 돕는 관리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 확보에 나섰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 상업용 세탁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LG 프로페셔널은 인공지능(AI)으로 세탁물 무게를 분석해 물 사용량을 조절하고 건조 조건을 최적화한다. 고속 탈수로 세탁물에 남은 수분을 줄여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드럼의 불균형을 감지해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은 진동과 부품 마모를 줄여 유지보수 부담을 낮춘다.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도 확대했다. LG전자는 지난 2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세탁 전문 박람회 ‘엑스포 디테르고 인터내셔널 2026’에 참가했다.

전시장에서는 최대 30kg 용량의 상업용 세탁가전과 물·전용 세제로 물이나 실크 의류를 관리하는 제품을 선보였다. 세탁물 종류와 매장 규모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현지 기업 고객



지난 2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규모 세탁 전문 박람회 ‘엑스포 디테르고 인터내셔널 2026(EXPO Detergo International 2026)’에서 LG전자 직원이 고객용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과 차별화된 세탁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들과 공급 협력을 논의했다.

매장 관리 서비스 ‘윈드리크루’도 소개했다. 관리자는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운영 시스템을 갖춘 고객에게는 LG전자 기기를 연동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별도 관리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덩치 키우고 더 똑똑하게… 패밀리카 ‘질주’



현대차 ‘디 올 뉴 투싼’

넓은 실내 공간 등 가족단위 이동 초점

2004년 처음 출시된 투싼은 지난해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최초로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5세대 모델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 ‘아트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차체 크기와 상품성을 키웠다.

신형 투싼은 기존 모델보다 전장 60mm, 전폭 40mm, 전고 20mm, 휠베이스 30mm 늘어났다. 2열 레그룸과 헤드룸도 각각 14mm, 29mm 확대돼 패밀리 SUV로서의 공간 활용성을 강화했다.

주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6터보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타고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출발해 자유로를 거쳐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카페를 들렀다. 돌아오는 약 92km 구간을 달렸다.

차체가 커진 만큼 기존 모델의 날렵한 움직임보다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먼저 다가왔다. 방지턱을 넘거나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크지 않았고, 일상 주행에서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충격도 비교적 적었다.

파워트레인 변화도 눈에 띈다. 기술린



현대차 5세대 디 올 뉴 투싼. /양성운 기자

모델은 대용량 터보차저를 적용해 최고출력 193마력(PS)을 확보했다. 8단 자동변속기를 채택해 변속 충격을 줄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구현했다.

신형 투싼의 또 다른 변화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이오스 커넥트’다. 현대차 SUV 가운데 처음 적용된 이 시스템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글레오 AI’를 통해 차량 내에서 자연어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형 투싼은 넓어진 실내 공간과 부드러운 위진감, AI 기반 편의 기능을 앞세워 일상과 가족 단위 이동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가속 성능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을 감안하면 주행의 역동성보다는 편안함과 공간 활용성, 디지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삼성, 하반기 GSAT 실사… 미래사업 인재 발굴

삼성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하고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이끌 인재를 선발하는 동시에 정기공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조를 이어나가는 방침이다.

삼성은 24~25일 이틀간 하반기 공채 지원자를 대상으로 GSAT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디스플레이,

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생명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GSAT 이후 11월 면접과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한 뒤 정기공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정기공채 제도를 유지하며 청년들에게 예측 가능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